

# “사랑을 함께 나눠요”

### 영중농협 농촌사랑봉사단 불우이웃돕기 및 장학금 전달식

1월16일 오전 10시30분 영중농협 경제부 2층 회의실에서 농촌사랑봉사단(단장 안남근)은 지난 1년간 봉사활동으로 적립한 기금 250만원을 가정형편이 어려워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학생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영중면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영중농협(조합장 안남근)은 지난해 4월18일 농가주부모임, 고향주부모임의 활동력 있는 주부 30명을 한데 모아 농촌사랑봉사단으로 단일화하여 농촌사랑 봉사단장에 안남근 조합장, 부단장에 박희숙 고향주부모임회장을 선출했다.

이들은 매월 1회 관내 독거노인 목욕봉사, 두부 만들어 팔기행사를 하고 년 중 6회 거동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이·미용봉사, 농번기 일손돕기, 각종 행사 참여 일일 수고비등을 적립했다.

이렇게 모은 기금 250만원을 조



합원에 국한하지 않고 영중농협이 관할하는 청수면 일부와 영중면 일대의 형편이 어려운 중·고등학교생 5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150만원을 지급하고, 부모가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고

간질로 언어장애까지 겪고 있는 불우이웃의 고액수술비에 100만원을 보태주게 된 것.

안남근 조합장은 “유명무실하던 두 단체를 하나로 묶어 활동력을 높여 농협에서 적극지원하며 내 부

모에게 못한 것을 이웃에게 내 부 모 몫으로 한다는 생각으로 봉사하는 봉사문화와 기부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며 “농촌사랑봉사단이 이러한 봉사문화를 정착시키기까지는 직원들이 300만원이나 기탁하여 후원해준 덕도 크고 서로 상생하는 마음가짐으로 지역주민과 농협이 서로 협조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희숙 농촌사랑봉사단 부단장은 “어려서부터 독립유공자이신 할아버지를 보고 자란 덕분에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봉사활동에 임해왔으며 고통과 사회로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으나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미용 봉사하러 가서 청소까지 해주면 너무나 고마워하시고 갈 때마다 반가워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잘 왔구나하고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장학금과 불우이웃돕기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양문리 문치성 ▶양문리 정이삭 ▶거서리 임중성 ▶거서리 송인범 ▶오기리 윤수미 ▶성동3리 김옥희

김미경 주부명예기자단 영북면지부장 hsd5333@hanmail.net

## Essay

### 잃어버린 동심



이러고 어느 책에서 읽은 적이 있다. 자유가 넘치고, 환락이 넘치고, 부정부패가 넘쳐 사회를 타류의 강으로 몰아가는 물결에 아이들이 밀려가고 있음을 귀를 열고 눈을 열어 지도자들의 가슴으로 느껴야 한다. 21세기 반을 넘어서면 평균수

하는거예요. 줄 필요 없어요.” “너 몇 살이니?” “나요 열 살이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동심이 잃어버린 세월 같구나. 그것은 열 살 소녀의 동심이 아니고 마구 쏟아져버린 어른들의 절제 없는 언어의 부산물을 아이들이 인용하고 있다. 생각하면 막막해지는 미래를 보는 것 같아 두렵기까지 한다.

### 이주 가까운 거리에 대형쇼핑몰... 덧새마다 열리는 장날

### 한락·부정부패 넘치는 사회... 미리 보는 세상은 두렵기만해

두 다리로 걷지 못하고 기어 다니며 구걸하는 사람에게 일말의 측은함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돈도 줄 수 없다는 그 아이가 세상 살아야 할 방향이 걸린 모습보다 더 안타깝게 느껴진다.

의사는 환자에게 절제를 처방하는 의사가 훌륭함으로, 자식에 게 절제하는 생활을 물려주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역할이고 스승은 제자에게 절제하는 방법을 교육시키는 스승이 훌륭한 스승

명 120세가 된다고 한다. 평범한 사람도 두 세 번의 결혼을 하는 시대... 미리 보는 세상은 좋은 점 보다 두려운 점이 더 많을 것 같다.

그 시대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이 참된 교육을 받고 자연수리대로 우리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잃어버린 동심을 되찾게 해주는 책임 의식도 지녀야겠다. 못내 마음 한편이 시리고 아픈 듯 추위가 느껴진다.

# “추억의 통기타 배워요”

### 영북 '각할 기타동아리' 제2기 개강식

영북면에 7080 추억의 통기타 바람이 분다.

지난 12일 오후 7시 각할 기타동아리(회장 유창열)는 영북다목적복지회관 강당에서 제2기 수강생을 모집해 개강식을 가졌다.

이날 개강식에는 이수홍 주민자치위원장, 김명옥 영북면부녀회장, 정해균 영북면의용소방대장, 전상수 영북면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 등 내빈을 비롯한 제1기 중급반 수강생과 제2기 기초반 수강생 40여명이 참석하여 1기 수강생들의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랑, 허풍, 달맞이꽃, 눈이 큰 아이,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때 그사람' 등 7080가요를 기타로 연주하여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수홍 주민자치위원장은 “각할 기타동아리가 기타를 배우기 시작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았는데도 그 연주실력이 포천시 어느 곳에

내놔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향상된 데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그 동안 노력해온 회원들의 노고와 의지에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홍순도 중급반 지도강사는 “제1기 수강생들이 모두 4~50대 중후반의 부부동반, 남녀혼성으로 구성된 만큼 배우기도 힘들고, 연주하기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성과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회원개개인이 부단한 노력을 한 덕분이며 제2기 수강생들 또한 이 모습을 본받아 잘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각할 기타동아리의 한 관계자는 “오늘의 각할 기타동아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영북면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센터에 감사드리고 5월에는 각 마을 노인정을 방문해 봉사할 예정”이라며 “영북면은 포천관내에서



문화적으로 소외된 부분이 많았으나, 앞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면 관내 공원에서 정기적으로 합주공연을 하여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嚴冬雪寒 녹이는 따뜻한 사람들

### 이동교4리 청년회 불우이웃돕기 실천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4리 청년회(대표 조대호)는 1월14일 두 딸과 사이버지(77.이근만)를 모시고 어렵게 살고 있는 소흘읍 초가팔리 김수길(여.43)씨 댁에 노후와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전기요금만 많이 올리는 양수기 등 수도기구 일체와 보일러 호스가 터져서 방안에 습기와 곰팡이가 항상 서려있던 호스를 교체하고 라면 등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김수길씨는 “엄동설한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어 고맙다”며 “그동안 전기요금도 매월 30만원씩 나와 너무 힘들었다”고 밝히면서 포천시의 생활보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도움의 손길을 펼친 이동교4리 청년회원 조대호·정진원씨 등 7명은 지난 6년 전부터 어려운 이웃이나 독거노인과 불우한 학생들에게 매달 쌀과 라면 등을 제공해

면서무소, 영북종합고등학교의 도움으로 영북 다목적 복지회관으로 이사하여 개강식을 갖게 된 것.

수강료는 월2만원이며 기초반 매주 월·금요일, 중급반 매주 화·수·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 30분까지 강습 받을 수 있다. 문의: 011-447-9617

김미경 주부명예기자단 영북면지부장 hsd5333@hanmail.net



온 것으로 알려져 훈훈한 정을 느끼게 했다.

이들은 또한 2~3년 전부터는 강원도 양양군과 설악동 지역의 홍수 피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수해현장 봉사활동에도 나섰다

김수길씨 댁 봉사에 참여한 이동교4리 청년회원은 ▶조대호▶윤종수▶정기웅▶김선만▶정진원▶이근화▶최광석씨 등이다.

조사위원회 총무 이홍우 hongwo54@hanmail.net

## 자유기고

### 행복은 어디에



김율리아 수녀·간호교과교수·간사·아동복지센터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으면 서로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복을 빌니다.

기원하는 말에서 느낄 수 있듯이 복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삶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며 그 분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매일 만나는 필리핀인들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는 외로움과 낯선 외국생활에서 겪는 온갖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늘 웃는 얼굴입니다.

조이라는 한 필리핀 여성은 산재로 인해 5년째 식물인간상태로 누워있는 남편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 조이의 삶의 무게가 느껴져서 “어떻게 지내세요?”라고 물으면 조이는 언제나 웃는 얼굴로 “괜찮아요 수녀님” 하며 공손히 머리숙여 축복해주기를 청합니다. 그녀가 청하는 축복의 의미가 마음속 깊이 느껴졌습니다.

오로지 하느님께만 의탁하는 그녀에게 그 깊고 또 긴 고통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다 봅니다. 이런 이들과 함께 저 또한 제 삶에 행복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묻게 됩니다.

지난 성탄과 연말행사를 이주민들과 함께 하며 감동과 기쁨

의 순간들 안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이주민들을 위하여 희생을 바치고 하느님의 섭리에 맡긴다는 지향으로 이주민들에게 답을 한 장 나누기를 위한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의 노력은 미약하였으나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필요한 그 만큼의 돈이 후원된 것을 보며 하느님께서 가난한 형제들을 위한 지향은 꼭 들어준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이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양로원과 병원을 방문하여 성탄 캐롤을 부르고 이주민들이 손수 만든 선물을

받았던 웃음이 사라졌던 두 살박이 에쿠스, 체불임금의 반도 안되는 돈이라도 센터에서 전화 화해 주어 받게 되었다고 기뻐하던 노동자들.... 그런 그들이 어려웠던 시간을 잘 견뎌 내고 지금은 성탄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연들과 가난한 이주민들의 얼굴들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We give thanks to you, for the chance to be with you”란 노래가 마음속 깊은 곳에

### 다른 어떤 것보다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며 그들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전달했습니다. 말과 피부색은 달라도 서로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위로 할 수 있음을 경험하고 크게 기뻐하는 이주민들의 모습이 내내 마음 깊이 남았습니다.

성탄미사를 드리는 이주민들의 얼굴하나 하나를 보며 한해 동안 그들과 함께 했던 일들이 필름이 돌아가듯 저의 머릿속에서 흘러났습니다.

지나치게 사생활을 간섭하는 사장이 싫어 다른 공장으로 이직을 시도하다가 필리핀으로 추방 당할뻔 했던 마리칼, 지방법소에서 일하다 빈민으로 도망 나온 조이, 어느날 갑자기 아빠가 본국으로 떠난 후 유난히도 많

서 우러나왔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며 그들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새로운 한해도 어려운 일들은 계속 생기겠지만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현존이 저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이주민들을 후원해주신 후원자들과 봉사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충만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 자유기고

### 왕방산의 수호천사



박예자 주부명예기자단 포천면지부장



가는 해 보내고 오는 해 반갑게 맞으며 늦겨울의 스산한 바람에 옷깃을 여미는데, 훈훈한 정으로 항상 웃을 뚝이 피어나는 어룡동 묵화빌라 김사분 할머니의 봄을 재촉하는 정겨운 사연을 전하고자 한다.

당년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의료자원봉사를 14년째 하고 계시는 김사분 할머니는 수지침으로 유명하다. 막상 만나 뵈고 보니 은화하시고 자상하시다. 대접 받으실 연세에도 불구하고 거실 한쪽 책상에는 성경책과 의사가 나란히 놓여있다. 다른 어르신 같으면 글씨도 안보이실 것인데 척척 활필이 없다.

김사분 할머니는 강남 신사동에서 신경성으로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고생하시다가 어느 젊은이를 통해 수지침으로 도움을 받고 효과를 봐 늦은 나이에 수지침 학원을 등록했다. 당시 70세의 연세에 시작하시자 지금도 이웃이 조금 불편하다고 연락이 오면 당장 달려나가시는 집 할머니,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원인도 없이 일어나지 못하고 계시는 조정순(83)할머니를 하나님께 간구히 기도하고 의료봉사의 수지침으로 치료를 했다.

지금은 치료를 받아 완쾌되신 조정순 할머니도 의료봉사에 앞장서고 있다.

조정순 할머니는 당신이 고침을 받고 김사분 할머니와 함께 침 할머니,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원인도 없이 일어나지 못하고 계시는 조정순(83)할머니를 하나님께 간구히 기도하고 의료봉사의 수지침으로 치료를 했다.

금이마나 줘다 그 노인 나는 부끄럼을 감출 수가 없었고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하는 뒤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손수 밥을 지어 드시고 자제 분들은 할머니의 뒤를 이어 여가선용을 통해 수지침을 공부하고 있다.

노후으로 힘들고 이유 없이 아파서 휴양 하러온 포천땅에서 지금은 건강을 되찾고 남을 도울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여유와 이웃 간의 풍요로운 정으로 제2의 고향으로 자리 할 수 있었는데, 제일 잘한 것이 있고 기다려지는 것이 있었다면 여성회관 가는 날이라고 합니다.

때가 되면 나를 데리고 가는 조정순 아우와 지회장 심화종 선생님께서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살아 숨쉬고 힘이 주어지는 그 날까지 그 누구에게나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달려갈 것이다.

배움의 욕구와 열정은 17살 시절의 기본인데 이젠 하면서 조금은 자신감을 낮추시는 할머니를 뒤로 하면서 크게 “김사분 할머니 파이팅! 건강하게 오래 오 래 사세요.” 라고 외쳐본다.

## 월빙

### 부사의(不思意)

### 야사(野史)와 야담(野談)

‘야사(野史)’라는 말을 들어 보았을 것이다. ‘야담(野談)’이라는 말도 들어보았을 것이다. 한 때는 야담이라는 이름으로 발행되어 나오는 책도 있었다. 필자도 청년 시절에 야담이라는 책을 즐겨 본 일이 있다. 야담이란 이야기책이다. 그러나 소설(小說)책은 아니다.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을지 모르나 분명 소설과 야담은 다른 것이다.

소설은 ‘허구(虛構)’이다. ‘픽션(fiction)’이다. 꾸며낸 이야기라는 뜻이다. 작가가 ‘가상(假想)’의 세계를 그려내는 것이다. 물론 그 이야기의 뿌리는 우리들 삶 속에 있는 것이다. 민초(民草)들의 삶의 이야기나 역사(歷史) 속의 기록을 배경으로 가상의 인물을 그려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상의 인물’을 그려내고

## 野談의 원조는 野史

‘가상의 성격’을 창조(創造)해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소설은 작가(作家)가 분명하나 야담은 그렇지 않다. 야담은 작가가 누군지 모른다. 야사(野史)에 흘러 다니는 이야기가 이 때문이다. 야사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작가는 분명치 않으나 이야기의 원전(原典)은 그렇지가 않다.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이나 줄거리는 분명할 때가 많다. 어사 ‘박문수’라든가 ‘홍길동’이라든가 ‘임경경’ 같은 사람들의 얽힌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경우이다.

출전(出典)은 분명하나 작가가 누군지 알 수 없을 경우 ‘야담’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책으로 출판되기 전 야담은 입에서 입으로 옮겨져서 이야기였다. 민초들 사이에 전승(傳承)되는 이야기였다. 그 이야기가 걸려지고 다듬어져 야담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누구 한 사람에게 의해서 옮겨지고 전해진 것이 아니라 ‘불특정(不特定) 다수’에 의해 옮겨지고 전해진 것이다. 이것이 야담이다.

야담에 실리는 내용은 대부분 ‘교훈적(敎訓的)’인 것이다. 물

론 ‘재미’도 있다. 재미있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다고 재미만 쫓는 게 아니라 감동(感動)도 있다. 아니 감동이 넘친다. 그리고 교훈적이 다. 배울 게 있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다. 어떠한 삶이 바른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인가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다.

야담은 이처럼 ‘교훈’을 주고 ‘깨우침’을 준다. 그 뿐이 아니다. ‘희망(希望)’을 준다. ‘꿈’을 준다. 자라는 청소년(靑少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준다.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지, 나도 저런 일을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해준다. 무언가 목표를 세우고 결심(決心)을 하게 한다. 야담이 주는 힘이다. 야담이 전승되는 이유이다. 야담의 원전(原典)은 ‘야사(野史)’라 할 수 있다. 야사는 ‘정사(正史)’가 아니다. 정식으로 역사에 기록된 이야기 가 아니다. 정식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라 해서 그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야사’로 기록되는 것이다. ‘정사’가 주로 나랏일을 기록하는 것이라면 ‘야

사’는 주로 민초(民草)들의 이야기나 민초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다. 정사에 기록되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역사적(歷史的)인 사실이나 정사에 실리지 못했을 뿐이다.

야사는 엄연한 역사적 기록이다. 사실이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의 이야기, 실존인물(實存人物)의 이야기이다. 이처럼 정사와 야사는 ‘보완관계(補充關係)’에 있다. 정사에 미처 기록하지 못하는 것을 야사에 생각을 하게 한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해준다. 무언가 목표를 세우고 결심(決心)을 하게 한다. 야담이 주는 힘이다. 야담이 전승되는 이유이다. 야담의 원전(原典)은 ‘야사(野史)’라 할 수 있다. 야사는 ‘정사(正史)’가 아니다. 정식으로 역사에 기록된 이야기 가 아니다. 정식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라 해서 그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야사’로 기록되는 것이다. ‘정사’가 주로 나랏일을 기록하는 것이라면 ‘야



이규임 민족영상제작위원회장